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홍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1988년 12월 탄생한 『교과서연구』가 어느새 1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숏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과서연구』가 꾸준히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의 노고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과서연구』를 구독과 조언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귀중한 원고를 작성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과서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 주신 편집 위원님들, 원고를 보기 좋은 책자로 꾸며 주신 디자인, 인쇄를 담당하신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서연구』 발행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핵심 사업으로서, 교과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성과, 교과서 제도·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과서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 100호 발행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교과서연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초연결 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에 대

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지위와 성격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경전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갖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주요한 자료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자율화·다양화됨에 따라 전체 교과용 도서 중에서 인정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금년 1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완화된 형태의 인정 심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흐름 속에서 『교과서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 편집위원 토론 등을 거쳤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1%가 『교과서연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구독방법으로 서책 59.4%, 서책과 온라인 병용 20.3%, 온라인 20.3%로 나타났으나, 앞으로의 바람직한 이용 방법으로 온라인, 서책, 온라인 및 서책 병행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교과서연구』가 지향해야 할 저널의 성격으로 현장 지원, 학술지, 소식 전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변화가 일어난 다양한 사례 소개’, ‘교과서에 대한 최근 국제 동향 내용 확대’, ‘교과서에 대한 현장 반응과 모니터링 안내’, ‘독자 투고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대략적인 구상 수준으로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조사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교과서연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제1조에는 “이 법인은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정책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동향과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의적절한 의제를 발굴하고 국제교과서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연구, 토대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내외 교과서 연구 성과, 정책 동향,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교과서연구』를 통해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교과서 분야에서도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과제가 많습니다. 등교가 미루어지고 이를 대신하여 원격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과서 공급 방식의 개선과 교과서의 디지털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서책형 교과서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교사와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원격 교육 활성화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재 제작 및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연구』의 현장지원과 소통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제도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질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교과서 질 관리는 상시적이면서 사용자 입장이 강조되고, 여러 주체가 참여·소통하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교과서연구』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과서 개발 주체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학생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실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과서연구』 개편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과서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과서 활용으로 수업 혁신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라 현장의 교사가 교육 경험과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업의 질 제고와 교사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자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현장성 높은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하면 교육의 현장 적합성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이해, 교과서 집필 방법,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연구』 제작·보급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번 100호부터 변신을 꾀하였습니다. 공급 방식을 서책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판형 개선, 전면 컬러 인쇄를 적용하여 외형을 일신하였습니다.

『교과서연구』 편집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연구자, 교원, 발행사,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유능한 분들을 필진이나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교과서연구』지가 독자에게 더욱 사랑받고 교과서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를 기대합니다.